

# KS 인증제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

남지영<sup>1\*</sup>, 이재학<sup>2</sup>

<sup>1</sup>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jynam@kpu.ac.kr

<sup>2</sup>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jhlee@kpu.ac.kr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KS Certification System

Ji Young Nam<sup>1\*</sup> and Jai Hak Lee<sup>2</sup>

<sup>1</sup> Dept. of Liberal Arts, The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sup>2</sup> Dep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The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2017-1-31 접수; 2017-3-8 수정; 2017-3-8 채택)

---

### 요 약

정부는 글로벌 국가인증마크의 육성 차원에서 KS를 개편하고 KS 인증기관의 참여 확대라는 KS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개편의 주요 골자는 사후관리 시 제품심사는 폐지하고 공장심사 방식을 적부판정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표준협회에서 단독으로 시행하던 KS 인증을 다른 인증기관들에게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편이 향후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본다.

키워드: KS 인증제도, 사후관리, 제품심사, 공장심사, 적부판정, 발전방안

---

---

### ABSTRACT

In order to globally nurture the national certification mark, the government has reformed the KS system and reorganized the operation system of the KS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participation expansion of KS certification bodies. The main reforms are to abolish the product test in after monitoring, and then to change the factory inspection from a grading system to a suitability judgment system. The essential change of the reform is that other certification bodi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KS certification, which was executed only by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so far. This study intends to contemplate the direction and impact of the reforms.

**Key words: KS Certification System, After Monitoring, Product Test, Factory Inspection, Suitability Judgment, Improvement Plan**

---

\* Correspondence to: Ji Young Nam. Tel.: +82-31-8041-0734 E-mail: jynam@kpu.ac.kr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 1. 서론

KS(Korean Standards) 인증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증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인증이다. 국내 사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제도로 현재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KS 인증은 물론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법정인증 외에도 민간인증이 너무 많아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즉 소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증제도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인증제도상의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글로벌 국가인증마크의 육성 차원에서 KS를 개편하고 KS 인증기관의 참여 확대라는 KS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편이 향후 미치는 영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해본다.

## 2. KS 인증제도의 개요 및 현황

### 2.1 인증제도 개요

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정임의 인증제도이다.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KS표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품목들이다. 1963년 11월 1일 제1호 인증 기업(금호전기)이 나왔고, 2016년 말 현재 KS표시 지정 품목은 1,000개를 넘었으며 약7,000개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KS 인증을 취득하였다.

현행 KS 인증제도는 1998년 민간 인증기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제도이다. 정부가 통제를 하고 다수의 민간 기관들이 참여하되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S 인증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고유의 국가인증제도(법정임의)라고 할 수 있다. KS 인증을 받은 기업은 KS 마크(☉)를 제품, 포장 또는 납품서 등에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받으며 전기용품 등 15개 범령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 있다.

KS 인증이 시작된 초기에는 정부에서 직접 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1998년 민간 인증기관(공산품의 경우 한국표준협회, 식품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을 지정하여 민간에 KS 인증 업무를 위탁시켰다. 다시 말해 최근까지 표준협회가 KS공산품 분야 전반 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12년 정부는 광·공업품에 한해 KS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KS 인증기관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동안 KS 인증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해 온 한국표준협회의 경우 KS 인증기관의 경쟁체제(복수화)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표준협회의 역할 재정립 등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KS 인증기관 경쟁체제가 시작되는 초기시점이므로 KS 인증제도 운영의 일관성, 부실심사 우려, 시장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등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른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

### 2.2 관련 법령

한국산업표준 KS는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된 국가표준을 말한다. KS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제3장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 제

품 등의 인증 및 인증심사를 진행하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제26조, 제30조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16조, 그리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4장, 제5장, 제7장, 제13장 규정에 따라 인증절차가 수행된다. 현재 KS는 서비스를 포함한 21개 분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1].

### 2.3 인증제도의 변천

KS 인증제도는 1963년 정부가 직접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민간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KS 인증제도는 국내 산업의 육성과 보호라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탄생한 제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변천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1단계(1960~1970)는 산업표준화와 품질관리 태동의 시기로, 공업표준화법을 제정하고 KS표준 제도마련 및 보급에 주력하였다. 2단계(1971~1980)는 산업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산업 표준화와 품질관리 확산의 시기이다. 3단계(1981~1990)는 산업 표준화와 품질관리 도약의 시기로, 산업 표준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KS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민간주도형 공산품 품질관리로 확대되는 시기이다. 4단계(1991~2000)는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의 글로벌화 시기로 공업표준화법이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이 되고 1998년 표준협회로 KS 인증업무가 이양되었다. 5단계(2001 이후)는 지속가능경영의 도입 시기로 KS표준의 국제화 사업이 추진되고 KS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법정 인증제도의 존재로 수요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손톱 및 가시'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경, 의료, 교통 등 각 부처 소관분야는 관련

부처에서 KS를 개발하고 인증을 운영하는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산업부내 유사 인증제도(지능형로봇품질인증, 물류표준설미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도 KS 인증 중심으로 통합을 하고 표준협회 단독으로 하던 KS 인증 업무를 다수의 인증기관에게도 개방하는 등의 대대적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1].

## 3. 발전방향

### 3.1 패러다임 변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KS 인증제도는 앞으로 계속되는 시장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KS 인증제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미래 산업 기반이 될 수 있는 표준의 개발과 인증제도의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향후 KS 인증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시장과 사회 및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증정책, 사회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한 인증제도, 기술고도화의 유효유로서의 인증제도 정책, 소비자안전 외에 융복합 산업의 증가와 같은 기술 및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는 인증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번 KS 인증제도 개정, 즉 KS 인증기관 복수화나 인증심사 완화 등 기업규제완화라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KS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을 자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 3.1.1 미래시장 형성에 기여하는 인증제도

앞으로 국가표준 및 KS 제정, KS 인증제도는 용

합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KS 인증제도는 미래 신규산업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기반 제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KS 인증제도가 미래 산업(혹은 기술)의 시장 배아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및 기술동향, 국민과 소비자요구 및 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 표준 및 적합성평가 개발을 시의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에는 전문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정보교류, 인증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산업계와 인증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KS 인증 관련 커뮤니티 구축 및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KS 인증제도는 기존 기술이 고도화되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기술들이 고도화되고 또 융합화되는 것이 주요 기술추세이고 이러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되어야 한다. 신기술에 대한 추세 및 이들 기술들의 융합가능성에 대한 논의, 국내의 관련 정보교류 및 정보축적,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인증 품목들을 폐지하고 기술융복합 관련 새로운 분야에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3.1.2 통합적 인증제도 가속화 필요

국내에는 201개 법정인증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300개 이상의 인증기관이 존재하여 기업들은 동일 품목에 대해서 중복인증과 중복시험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인증기관이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유사인증을 조속히 통합하고 인증의 종류를 줄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증제도와 인증기관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유사인증을 KS 인증 중심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KS 인증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KS 인증제도의 목표 및 운영이 국민과 소비자 신뢰와 혜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KS 인증 경쟁체제의 신중하고 정교한 설계, 철저한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 관리가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S 인증으로의 통합을 시작으로 기타 다른 행정부처가 관할하는 인증 등을 KS로 통합하여 중복인증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 KS 인증기관 복수화 및 인증절차 등의 완화보다 여러 인증의 KS 인증으로의 통합이 더 시급하다. 또한 KS 인증제도의 개정이 기업의 부담완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타 인증 간 시험결과 상호인정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00여개의 법정 인증 간 중복인증 품목이 증가하고 동일품목에 대한 중복시험으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KC인증과 KS 인증 간 중복되는 품목에 대해 시험결과가 상호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전 부처 여러 인증심사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유사 인증과의 활발한 통합이나 협력(예: 상호인정)을 통해 인증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증제도가 되어야 한다. 상호인정 제도를 확대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ISO 9000 또는 별도의 강화된 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KS 인증 공장심사는 기업부담 가중으로 이어지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공장심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장심사제도에 있어서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품질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심사항목은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이후 대폭 개편된 KS 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S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허점이 없도록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규제 완화 및 인증제도 개선이 인증제도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면 즉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원칙이라면 앞으로 꾸준히 중복인증을 폐지하는 것이 KS 인증기관 확대, KS 인증심사 절차 완화보다 더 시급하다고 하겠다.

### 3.1.3 민간화로의 전환 필요

현재 KS 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 동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가 KS 표준의 제·개정 및 폐지 권한, KS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 인증심사절차 및 기준, 인증심사원 자격, 정기심사, 시판품 조사, 과태료 징수 등 KS 인증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들 법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KS 인증기관 복수화 또는 경쟁체제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사실상 정부가 여전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KS 인증의 시장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KS 인증기관 확대는 정부 공무원의 업무량만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인증기관의 운영 등 인증제도 운영을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준인 ISO 17065를 토대로 ISO 인증처럼 인증제도를 완전 민간화 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증심사 등 인증기관 업무, 사후관리와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 등 인증에 대한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KS가 아닌 민간 인증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KS 인증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 KS 인증의 민간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인증기관들의 국내진출에 따른 KS 인증의 위축 등의 환경에서 KS 인증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중심의 KS 인증 법제도 및 운영상의 변화가 요구된다. KS 인증의 내실화를

다지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의 민간화를 통한 KS 인증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 3.1.4 국민·소비자 밀착형 인증 시스템

앞으로 KS 인증 범위를 생활밀착형 분야, 소외계층 분야, 서비스산업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삶, 소비자복지 추구의 인증제도 패러다임으로 구축해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인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서 KS 인증이 증가하여 소비자와 국민의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증획득 자격을 공장 위주에서 탈피하여 유통 판매상 및 수입상, 일상 서비스 산업 분야로 인증 획득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KS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인증기관의 상호교류, KS 전반에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되는 메커니즘이 되지 못하고 있다. KS 인증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전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KS 인증 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매체 뿐 아니라 소비자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KS 인증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인증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3.2 개선 방향

### 3.2.1 공장심사기준 개선

개정된 KS 인증제도는 인증 대상 기업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KS 인증 심사내용 중 품질수준을 유지하는데 관련이 없는 기업규제적 요소들은 없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사기준이 고가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증기관의 경쟁적 시스템 속에서 부실인증 가능성이 존재한다. 안전 및 품질기준 완화로 KS 인증의 국민신뢰도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장심사 절차나 행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편리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가 안전하게 고품질의 인증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증심사는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KS 인증제도의 개정에 대해 소비자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대상 KS 인증제도 개정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가 시급하다. 또한 소비자안전을 제 1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기업의 편리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한편, 향후 산업 영역에 따라 차별화 된 공장심사 즉 심사의 차별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NF 제도의 경우 사후관리에서 공장심사 주기는 1년이나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할 경우 2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KS는 동일한 기준으로 공장심사기준과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데 품질우수기업 또는 소비자안전 등 모범적 기업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주기를 연장해 주는 차별화된 인증제도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2.2 인증 담당자의 위상 강화

기업의 KS 인증 담당자의 권한 및 위상강화가 KS 인증제도의 효율적 성과에 중요하다. KS 인증제도 개정이 기업 대표에게만 비용절감이 되고 있을 뿐 품질 및 KS 인증 담당 직원에게는 인증업무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만 시킨다는 면접조사 결과[1]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인증 및 품질담당 근로자의 의견 및 노하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어떤 KS 인증제도의 개편도 인증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없다. 따라서 KS 인증제도 운영에서 기업

KS 인증 담당자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KS 인증제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기업의 품질 또는 인증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품질 및 KS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이 기업조직 내에서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들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KS 인증에 대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식변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KS 인증사무국 또는 공장심사를 수행하는 인증기관이 기업의 인증담당 근로자의 권한 및 위상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KS 인증을 받은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주체가 되는 의사교류 채널이나 커뮤니티 구축 및 지원, KS 인증 사후관리에 따른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수강자(인증 및 품질관리 담당자)들이 수동적 위치에서 단순히 교육을 제공받는 것에서 벗어나 수강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거나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타 수강자의 강의나 경험을 제공 받음으로써 보다 능동적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같은 변화는 인증심사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기업담당자 및 심사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증심사를 넘어서 창조적 품질관리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 3.2.3 KS 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즉 KS 인증제도 운영의 선진화를 위해 ICT 기술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선진 적합성평가 기관들은 국제표준 및 제반 인증과 관련된 규정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성분, 생산 공정, 사용 환경 등

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KS 인증 정책 및 운영에서 IC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은 시험의 질과 더불어 인증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인증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품의 시험과 인증에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제품 품질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ICT를 활용한 웹기반 KS 인증 시스템은 인증과 관련한 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심사 준비와 관련한 자가 진단 및 자문 기능의 제공이 가능하고 더욱 효율적인 인증 심사의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KS 인증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인증비용을 실질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수수료 인하보다 KS 인증과 관련한 선진화된 관리, 인증시장의 효율적 작동 등을 통한 기업의 비용절감 가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증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인증비용인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통해 개선이 어디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파악하여 실질적인 비용절감을 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인증심사원 면접 및 전문가면접 조사결과 ISO 인증에 비해 KS 인증비용이 절대적으로 낮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2.4 인증심사원 관리 개선

인증심사원은 KS 인증제도의 성공적 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KS 인증 심사원의 자질을 높이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을 근거로 심사원 등급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KS 인증심사원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 구축  
KS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확보, 심사원의 효율적

관리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즉 KS 인증심사원 관련 채용, 교육 및 훈련, 평가 등 심사원을 관리하는 매 단계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심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원이 보유할 수 있는 심사코드의 수를 현행 5개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고민도 필요하다. 오래전 표준협회는 심사원에 대한 보유코드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KS 인증심사를 받는 기업들이 종종 심사원의 전문성에 불만이 많았다. 앞으로 KS 인증 교육기관이나 관련 사무국에서는 인증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심사원의 정보구축, 특히 KS 인증기관의 확대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관리방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물론 지정된 인증기관에 소속된 KS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많이 하는 것은 규제 할 필요가 있다. 표준협회의 심사원에 대한 적절한 코드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5개로 제한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KS 인증에 있어서 시스템 분야가 강화되고 이를 위한 표준협회의 역할이 분명해 진다면 향후 심사원 코드 제한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심사원자격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요구사항의 설정

2015년 7월 개정된 KS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르면 인증심사원은 3년마다 인증심사원 심사자격을 갱신하고 직무교육을 1년에 7시간 이상을 받으면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KS 인증심사원의 과거 심사업무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어 인증심사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갱신등록의 경우 심사원의 과거 심사업무 경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심사원의 업무수행 평가시스템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인증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심사원의 심사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고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증심사원의 학력에 대한 자격기준이 수정(석사3년 → 1년, 학사5년 → 2년, 전문학사6년 → 3년 등)된 만큼 실제적인 심사업무 경력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인증기관 및 인증심사원의 지속적 관리 및 개선 필요

2015년 7월부터 KS 인증기관 복수화가 전격 실시되었으므로 인증기관 및 인증관련 주체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 및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KS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의 등급제 평가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어느 심사원이 심사를 나가더라도 인증심사 대상기업은 동일한 심사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심사원들 간에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 등급제의 도입은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의 경력과 업무수행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등급화시켜 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들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3.2.5 KS 부실인증 예방 대책 마련

인증기관이 다수인 ISO 인증의 경우 인증기관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인증심사원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에 관련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종종 발생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신뢰성은 하락하고 있다. 인증기관 복수화라는 개정된 KS 인증제도의 특성상 다수의 인증기관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KS 인증을 획득하게 되는 등 장기적으로

KS의 부실인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해외에도 일본과 프랑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단일 인증기관 체계(영국 BSI, 독일 DIN)를 유지하면서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는 복수의 인증기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괄관리기관(프랑스 AFNOR)에서 다른 인증기관을 관리하면서 부실인증을 철저히 예방하고 인증의 공신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복수의 인증기관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 누구나 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ISO 인증 등 동일 품목에 대해서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여 기업의 선택권을 주는 경우 기업의 속성상 비용이 저렴하고 인증 신청시 합격이 예상되는 인증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불합격이 없는 부실 인증이 될 우려가 크다.

지금까지 KS 인증이 타 인증과 차별적인 부분은 인증심사원이 서로 다른 두 기관에서 나와 합동 심사반 형태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인증기관과 심사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서로를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 우수한 심사체계이다. 이는 KS 인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15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으로써, 인증기관이 추가지정 되더라도 이러한 2인 1조의 합동 심사반 체계는 계승해야 할 우수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개정된 KS 인증제도에서는 인증기관 스스로가 소속 심사원에게 인증심사를 맡기는 시스템이 될 수 있어 부실심사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시급하다.

### 3.3 사후관리 방안

KS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서비스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 사후관리 정책이 적극 수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증을 위한 시험 시에서는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시판품 조사에서 불량이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증기관의 문제라기보다



는 기업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 취득 시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기업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취해져야 할 것이다.

KS 인증의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S 인증 사후관리 활동을 현재와 같이 국가기술표준원 외에도 인증기관 및 제 3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품심사가 폐지되었으므로 인증을 받은 기업 제품의 사후관리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처벌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인증기관의 권한 및 자율적 사후심사 등에 권한 부여, KS 인증 변경절차 등 기업의 인증 관련 행정적 절차에 대한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엄격한 KS 인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감시 규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법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KS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결과는 KS 인증제도 내부적 문제점들의 대부분이 인증기관의 운영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하거나 국가기술표준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KS 인증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KS 인증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과다경쟁의 폐해를 고려할 때 적당한 방안이라고 하기 어렵다.〔2〕 물론 인증에 걸리는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인증기관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가능하겠으나 이것을 위해 인증제도를 개정하여 복수인증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그 실효가 적다고 하겠다. 복수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정하여 인증 기업의 비용감소는 기업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정부가 KS 인증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증가 등 인증기관 복수화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KS 인증기관의 복수화는 소비자에게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인증기관의 경쟁으로 인한 효

과가 소비자에게는 부실인증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3.4 인증기관의 효율적 운영

국내 ISO 인증 시장에서 인증기관의 복수화가 ISO인증의 부실과 신뢰도 저하로 나타난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인위적 KS 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시스템인증기관은 KAB에 등록된 기관만 45개이며 외국계 인정기관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인증기관 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불러오게 되었으며, 인증시장 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인정을 받은 기관들로 인하여 경쟁의 과열을 불러오고 이는 자연적으로 부실인증을 유발하였다. 강병구〔2〕는 인증제도의 특성상 싱글호밍이 자연스러운 시장에 멀티호밍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인증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IAF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KS 인증제도의 변화가 KS 인증의 질 향상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제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KS 인증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증의 공신력이다. KS 인증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증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인증이다. 따라서 KS 인증기관이 추가되더라도 KS 인증제도의 공신력이 하락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KS 인증 업무는 산업표준화법령에 의한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익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인증사업은 영리기업이 참여한다면 본래의 공신력보다는 이윤추구 논

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증기관이 증가하여 경쟁체제가 되더라도 비영리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표인증인 KS 인증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경우 인증시장의 전반적 공신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KS 인증시장의 특징이 일반적인 시장경쟁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법률에 의한 임의인증이 민간의 임의인증과 다른 특성이 있어 시장경쟁체제의 도입이 KS 인증제도 운영의 개선을 불러온다고 보기 어렵다는 일부 주장도 많았다.

KS 인증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이란 지금까지 KS 인증을 할 수 있는 한국표준협회 이외에 다른 기관에게도 인증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KS 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KS 인증기관 선정은 2가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첫째, 인증기관들이 KS 인증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제한하여 서로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 인증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표준협회의 KS 인증 분야를 현재의 전 분야에서 몇 가지 분야로 축소를 하고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인증기관들에게 서로 중복되지 않는 인증분야에 대하여 인증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간의 진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독점적 운영을 하고 있는 KS 인증제도를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해당분야에서 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증기관을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KS 인증 분야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인증 분야에서 인증기관 간의 경쟁이 가능 하도록 즉 새로이 시장에 진입할 인증기관에게 인증권한을 모든 분야에 주는 것이다. 이 경우 KS 인증시장에서의 인증기관 간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인증기업의 교육, 인증심사원 교육, 인증업무 지원 사무국이 KS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증기업 및 인증심사원의 교육은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것보다는 제3 민간기관 또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표준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증을 주는 인증기관에서 스스로 기업교육 및 인증심사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부실인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사원 교육기관 지정 요건에도 'KS 인증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을 감안 할 때 KS 인증과 관련한 교육의 전문성이 있는 표준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여러 기관이 심사원교육을 수행할 경우 표준협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정 및 내용의 심의 또는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수의 인증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 및 관련교육을 표준협회가 사무국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하다.

### 3.5 균형적 수요자 지향성 추구

KS 인증제도의 경쟁력 확보는 양면 시장 즉 소비자 및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증관련 주체들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토대로 사회공공성 추구가 중요하다. 그 동안 많은 조사(3~5)에서 이루어진 기업의 중요한 요구사항은 품질관리 담당자의 확보 및 유지, 인증의 실효성 부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외면,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관심 부족, KS제품의 신뢰도 저하, 과다한 KS 인증대상 품목, 주력 분야 및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KS지정 미흡 등이었다. 또한 KS 인증제도는 사후관리 수단으로서 행정처분,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등에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강화는 물론 인증기관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KS 인증 심사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불만이나 표준화 일반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매우 낮았으므로 KS 인증제도의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이 기업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거나 KS 인

증 운영 주체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용해야 할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규제 철폐라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심사완화 보다는 사회 공공적 목표, 소비자복지증진,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적 취지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KS 인증 기준설정, KS 인증 수수료, 인증심사원 관리 등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기관의 의사결정권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 기업의 요구사항 중 품질관리 담당자의 확보 및 유지, 최고경영자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은 인증을 받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이다. 한편, 정부의 우선구매, KS 인증의 실효성, KS 인증품목의 지정이나 폐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및 운영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KS제품의 신뢰도 확보는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나 KS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이다. 다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약간의 조정), 인증소요시간의 단축은 인증기관의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분야이다.

지금까지 KS 인증제도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정리·종합하면 KS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타 인증마크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KS 인증 관련 기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S 인증은 법정 임의인증으로서의 오랜 역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는 경쟁 인증마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KC 마크가 등장하고 에너지 절약, 신기술 인증, 환경마크 등 기타 법정 임의인증 뿐만 아니라 Q 마크, 공기청정마크 등 민간인증 등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KS 인증은 인증기관뿐 아니라 지정심사기관,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공인시험·검사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협력은 KS표준, 인증심사기준,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 지정,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시판품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권

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휘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KS 인증의 고도화를 위하여 이들 관련 기관들의 원활한 협력과 시스템인증으로서의 역할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국가표준기술원의 KS 인증제도 개선과 더불어 KS 인증 관련기관의 노력과 함께 인증심사원의 자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판품 조사의 방법과 구체적인 회수뿐 아니라 해당 예산 확보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결론

KS 인증제도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정 인증제도의 민간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KS 인증이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부담 없이 생산 활동을 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행복이 추구되는 민간제도, 안전장치 관점의 자율적이고 민간적인 제도로서 접근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KS 인증제도 및 인증제품에 대한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KS 인증제도 운영의 수요자 지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인증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의 인증제도 운영을 벤치마킹 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제도 운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증제도 관리의 고도화 방안 모색, 시스템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 등 인증제도의 혁신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KS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를 위해 지원해주신 (사)표준학회에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1] 표준학회, “KS 인증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신뢰성 확보 방안,” 최종보고서, 2015.
- [2] 강병구, “KS 인증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KS 인증기관 경쟁체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8(3), pp. 77-96. 2014.
- [3] 국가기술표준원, “KS 인증제도 실태 및 개선요구 조사,” 2005.
- [4] 국가기술표준원, “KS 인증제도 실태 및 개선요구 조사,” 2007.
- [5]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KS 인증제도의 개선방안,” 2009.